

어느 젊은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4일 밤 1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모(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오전 전씨는 자신의 아내(33)와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나란히 안치됐다. 부인의 갑작스런 시한부 판정을 비관한 20대 남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21층에서 투신을 했고, 급성패혈증으로 투병을 하던 전씨의 아내도 두 시간 뒤 숨을 거둔 것이다.

서울이 고향인 전씨는 가족과 떨어져 광주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누나와 동생'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지난 2013년 1년간의 열애 끝에 '백년 가약'을 맺었다.

외동 아들이었던 그에게 씩씩한 성격

광주 광산구 20대, "시한부 아내 차마 못 봐" 아파트 투신 급성패혈증 앓던 부인도 2시간만에 숨져 주위 애절함 더해

그의 내리는 특별한 연인이었다. 각별한 애정과 믿음으로 아내를 대했던 그는 소문난 애처가였다. 어머니가 없는 아내를 위해 늘 처가를 먼저 챙겼고 이웃들이 "요즘 젊은 부부답지 않게 급습이 좋았다"고 안타까워 할 정도로 흔한 말다툼 한번 없었다.

하지만 건강했던 아내가 지난달말 급성패혈증으로 입원을 하면서 전씨의 상심이 컸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상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병간호를 했지만

그는 투신 전날 밤 11시에 아내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 의사에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아내의 마지막을 통보받은 전씨는 장인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홀로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가 발길을 한 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였다. 3일 밤 11시40분께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이 살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거실 벽지에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흔적도 남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거실 한쪽 벽지가 손톱에 의해 뜯겨져 있던 것으로 미뤄 아내의 생명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홀로 있던 30분간 괴로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씨) 아내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홀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남편의 안타까운 선택이었다. 같은 날 운명을 달리한 두 부부는 현재 같은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마치는 대로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나란히 안치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달뜨기 20:24
해질 19:21 달지기 06:23

맑은 날씨 중심 활짝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8/24	보성	맑음	5/23
목포	맑음	8/20	순천	맑음	9/24
여수	맑음	11/20	영광	맑음	6/22
나주	맑음	5/25	진도	맑음	6/20
완도	맑음	9/23	전주	맑음	6/24
구례	맑음	5/25	군산	맑음	8/20
강진	맑음	7/22	남원	맑음	4/24
해남	맑음	6/22	홍산도	맑음	11/17
장성	맑음	4/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0.5~1.0
남부	남바다	북서~북	1.0~2.0	남서~서	0.5~1.5
남해	남바다(동)	북서~북	0.5~1.5	서~북서	0.5
서부	남바다(서)	서~북서	1.0~2.0	북서~북	0.5~1.0

◇생활지수

☾ 수면	90
🚲 운동	70
👕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57	08:09
	14:58	20:12
여수	09:43	03:41
	22:13	15:38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	☀️	☀️	☀️	☀️	☁️	☀️
10/24	12/25	12/25	13/24	14/23	14/22	13/24

전농 광주전남연맹, 양파값 폭락 대책 촉구

내일 나누서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6일 나누에서 잘못된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으로 양파 값이 폭락한 데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전농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5~6%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수매한 뒤 보관해둔 양파 1만2000t을 유통,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지난달 21일 서울 가락시장 경매 기준으로 영암군에서 출하된 조생양파 한 방 20kg이 단돈 10원에 낙찰됐

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특히 "정부의 양파 최저가격 보장 금액은 1kg 350원인데, 이 비용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가을 배추 파동 이후 재배면적을 늘리면서 배추값이 폭락하는 등 무능한 농업 정책 탓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또 "양파 유통업자에게 두 배가 넘는 가격인 1kg당 780원을 보전해주는 데, 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는지 의문"이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현재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국가보안법 합헌"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김일성 회고록 등을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의 신청으로 수원지법이 제정한 국보법 7조 5항 위헌법률심판과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국보법 7조 1항과 3항,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7조 3항은 이적단체 구성·가입 때, 7조 5항은 이적활동 목적으로 각종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을 때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국보법 7조 1항에서 금지한 이적행위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복 시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안보 현실에 비추어 구체적 위법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25일)을 앞두고 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회사 사 4사 3층 석탑을 본뜬 봉축탑(높이 20m)이 세워져 불을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두고간 현금 가져갔다면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광산경찰·북부경찰 각각 동일 사건 다른 죄명 입건 법원 최종 판단 주목

코너에서 조모(34)씨가 두고 간 현금 30만원을 가져간 주부 윤모(여·50)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 있던 현금이 소유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경비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출동해서 소유자의 점유(지배)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의 행위를 '횡령'이 아닌 '절도'로 봤다.

통상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을 가르는 기준은 해당 물건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났느냐의 여부인데,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관할 경찰서나 담당 경찰마다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절도(범)'와 '횡령(범)' 사이를 오간다는 것이다.

전세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느 수사 기관에서 수사 받느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진다는 것을 누가 과연 납득하겠는가"라며 "통일적인 수사권 행사 측면에서도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하던가 상급기관에서 명확한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 누군가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가면 무슨 죄명으로 입건될까?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고, 경찰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할 수 있다. 하지만 관할 경찰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를 각각 달리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노모(23)씨는 지난달 11일 밤 10시께 광산구 송정동의 한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 황모(26)씨가 두고간 현금 10만원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노씨가 가져간 현금이 이미 소유자나 은행 관리직원의 지배(점유)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보고,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판단했다.

반면 북부경찰은 지난 3월 28일 밤 10시께 북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광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변자격)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우승신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코전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